

# 불교사 뒤켠에 감춰진 조각승 다시 들추다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 ① 조각승 연재를 시작하며

현전, 수연, 색난, 진열, 계초... 다소 생소한 이들 스님의 이름을 아는 독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스님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나고 사찰을 중건할 때 법당에 모실 부처님을 조성한 조각가들이다. 이들이 조성한 불상은 10여년 전부터 보물이나 유형문화재 등으로 지정될 정도로 문화재적 가치가 밝혀졌지만, 정작 불상을 만든 스님들은 여전히 우리들 관심 밖에 있다.

조선 후기 불교조각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제작된 불교조각에 비해 미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300년 동안 유사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양식적인 변천이 없다는 선입관마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징은 불교가 억압받던 시기에 외래 불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바뀌 말하면 가장 한국적인 불상을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필자가 조선 후기(1600~1910) 불교조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7년 7월 전남의 작은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빗돌과 남도에 있는 사찰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강진, 해남, 화순, 고흥 등 남도의 여러 사찰에 봉안된 불상들이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 중건된 연혁과 전각마다 봉안된 불상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웃을 입고 있는 착의법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강진 정수사 나한상과 미국 메트로폴리탄 가집존자(전남 해남 성도암 조성)를 17세기 후반 색난 스님 등이 만들었다는 연구논문을 접하면서 한 명의 조각가를 알게 되었다. 미술사학계에서는 1990년을 전후로 18세기 전반에 불화를 그린 불화승 의겸(義謙) 스님과 17세기 후반 범종을 만든 주중장(鑄鐘匠) 사인(思印) 스님의 활동과 양식적 특징을 밝힌 논문이 발표되어 색난 스님을 통하여 불상을 만든 작가들도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2년 동안 전남 사찰에 봉안된 불상을 조사하면서 화순 쌍봉사, 광주 덕림사 등에 색난 스님이 만든 제작연대가 밝혀진 불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색난 스님의 활동 시기와 거주 사찰 등을 중심으로 불상 양식을 밝힌 논문을 학계에 발표했다.

불상을 만든 스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문헌은 조성발원문이나 사적기 등에 이름만 간략하게 적혀 있지만, 여러 자료를 비교하면서 활동 시기, 거주 사찰, 불상 양식 등을 추정하였다. 조선 후기 불상을 만든 작가들은 문헌에 화사(畵士), 화원(畵員), 양공(良工), 장인(匠人), 조상(造像) 등으로 적혀 있다. 이 명칭과 더불어 여러 스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관계적으로 위계에 따른 순차적인 표기로 인식할 수 있고, 먼저 언급된 스님이 스승이나 선배로 볼 수 있어 이 분들의 상호관련성을 추정해 보았다.



<사진 왼쪽부터> 강화 전등사 목조여래좌상(수연, 1623년), 강진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색난, 1684년, 정수사서 조성), 양주 회암사 목조여래좌상(상정, 1755년). 조선 후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수연·색난·상정 스님이 만들었다.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 등 전란으로 많은 사찰들이 파괴되고, 이를 중수하는 불사들이 일어나 조각승들의 활동도 많아졌다. 당시 작품에 대한 가치는 많은 연구가 이뤄졌지만 조각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명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선 전기에 제작된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는 작가 앞에 화원(畵員), 부금(付金), 금박(金箔), 칠사우(漆舍牛), 각수(刻手), 마조(磨造), 소목(小木) 등으로 구체적인 역할을 적어놓았다. 이는 나무로 불상을 만들 때, 산에서 나무를 자르고, 건물을 치고, 세부를 조각하고, 옷칠하고, 금을 칠하거나 입히는 과정과 비교해보면 제작 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조선후기에도 동일한 기능이 결합되어 불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 불상을 만든 스님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실제적으로 조성발원문과 사적기에서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작가들을 총칭해서 부를 수 있는 명칭이 필요했고, 불화를 그린 불화승을 참조해 조각승이라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 불상 제작에 참여한 작가의 가장 큰 특징이 모두 출가한 스님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전통 사찰에 봉안된 불교문화재는 대부분 조선후기에 제작된 유물들이다. 이는 조선시대 송유억불 정책과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으로 많은 사찰이 파괴되면서 전각 내부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이나 불화 등의 성보들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선전기보다 조각승의 활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사찰 정비가 거의 끝나는 18세기 중반 이후는 불상 제작의 수요가 없어지면서 중수와 개금이 주로 이루어져 조각승의 존재 기반이 서

### 임란 거치며 조선 후기 불사 증가

### 불상 조성참여자 모두 출가 스님

### 18세기 이후 수요 줄며 뒤안길로

### 불상 조각승 예술 세계 조명함은

### 불교문화재 생명력 불어넣는 작업

서히 붕괴된다. 반면 불교회화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성보 문화재를 소각공양하고 다시 만드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불화승의 활동과 숫자는 일정 정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라 전국의 전통 사찰에 봉안된 불상은 대부분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조선 후기 불상은 전각이 화재와 수해로 피해가 없는 이상 파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만큼 하나의 불상을 제작하는 일은 사찰에서 가장 큰 불사이기 때문에 과정

이나 참여 인물 등을 적어놓은 문헌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산 속에 있던 사찰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빨치산들이 머물거나 식량 조달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명 아래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사찰을 파괴하였다. 사찰에 봉안되어 있던 많은 문헌기록이 파괴된 상황에서 한 명의 작가를 밝히는 것은 쉬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의 존재를 지금까지도 조금씩 연구하는 것은 결국 성보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에 불상을 조성하거나 중수 개금에 참여한 스님은 1,0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한국불교조각사에 족적인 남긴 스님은 100여 명에 이른다. 이 조각승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의 흐름이 정리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가운데 많은 작품이 남아있어 활동이나 불상의 양식적 변천까지 밝힐 수 있는 스님도 있지만, 대부분 조각승들은 3~4점 밖에 작품이 조사되지 않아 작가의 삶을 복원하기 미흡한 점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승관계와 거주 사찰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하나하나 점을 찍다 보면 선이 생기고 그것이 면이 되면서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결국 스님으로 출가해 자신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로 불상을 만든 조각승들의 삶과 그들의 예술혼을 밝히는 것이 한국의 불교문화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라는 확신을 필자는 가지고 있다.

현재 사찰에 봉안되는 불상이나 불화를 조성하

는 사람을 흔히 '불모(佛母)'라 부르고 있다. 이는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을 만든 작가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일 것이다. 그러나 불모라는 명칭은 근대 이전에 쓰여진 적이 없지만 현재 스님이나 신자들에게 쉽게 불상을 만든 작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단어라 생각이 들어 제목을 '불모열전(佛母列傳)'이라 불렀다.

1년 동안 연재할 작가들은 대부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기간 중에 파괴된 사찰에 봉안된 불상을 만든 스님들의 이야기이다. 원오·현진·수연·청허·승일·무염·희장·사인·영철·계찬·혜희·운혜·회감·색난·마일·승호·일기·금문·여찬·하천·진열·상정·봉현·계초·계심·설훈 스님 등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불교조각사에 한 축을 담당했던 조각승들의 작품세계의 면모를 이제부터 소개한다.

### 최선일 위원은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前 강진정자박물관 학예연구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과 서울특별시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조선 후기 승장(僧匠) 인명사전-불교조소> <조선 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등이 있다.

• 공단등(6cm) @2,500원	• 공단등(8cm) @3,000원	• 바림등(8cm) @3,000원	• 황금등(8cm) @3,3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90,000원

  

###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40cm (50구) @73,000
• 23cm (50구) @65,000	• 50cm (50구) @75,000
• 25cm (50구) @65,000	• 1 m (50구) @90,000
• 30cm (50구) @65,000	• 2 m (25구) @80,000
• 35cm (50구) @70,000	

## 고급 국내산양초

밀 대(70) / 돈타레(40) / 원기둥(20) / 박스 @90,000원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10×43cm) / 10,000원 2도 (7×3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크기: 7.5×30cm	입춘대길(大/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크기: 大 7.5×28.5cm (흰색/노랑) / 小 5×19.5cm (노랑)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 (개당) / 크기: 60×7cm (빨강/노랑) / 포장: 개별 봉투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크기: 10×15cm / 9×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기: 9×2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기: 9×2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한지 세뭇돈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 A: 흰색 / C: 노랑-남아다 좋은 날 되소서. / B: 흰색 / D: 분홍-참 좋은 인연입니다.